

이동동사와 장소명사 표지*

홍 기 선

1. 서 론

움직임동사(movement verbs)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위치가 결정되거나 혹은 변동되는 사건을 가리킨다(Talmy 1985: 62). 영어에서 전자의 예로는 stop, stay, remain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go, come, move 등이 있는데 이중 위치의 변화를 가리키는 후자만을 이동동사(locomotion verbs)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동동사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a)처럼 움직이는 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와 (1b)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게 된 경우 두 가지인데 본고는 이중 첫번째 경우만을 다룬다.

- (1) a. The ball rolled into the box.
- b. John rolled the ball into the box.

본고는 영어와 한국어의 이동동사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이동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장소 명사에 초점을 맞춰 살펴 보기로 한다. 2장에서는 영어의 이동동사가 취하는 장소명사를 홍재성(1989)에 따라 여섯 가지로 분류하며 그 의미와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 보고, 3장에서는 한국어의 이동동사를 살펴 본다. 4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처럼 언어계통상 전혀 연결되지 않은 두 언어가 이동동사가 취하는 장소를 표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과 체계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논한다. 본고는 Tenny(1987, 1992)에서 제시된 [+영향입음(Affect-edness)]이란 의미자질에 입각하여, 영어의 대격과 한국어의 “를”이 의미적

*이 글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주최 한불언어학 국제학술대회 (1994. 10. 22)에서 발표했던 “Accusative Marking in Korean Movement Verb Constructions”를 발전시킨 것이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1994년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비에 의해 연구된 공동연구 “한국어 이동동사 구문 연구”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연구책임자 홍재성 선생님, 공동연구자 채희락, 윤정미 선생님과 학술대회시 논평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으로는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나 영어는 한국어에 없는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영어의 대격이 한국어의 “를”에 비해 제한된 분포를 보임을 설명하려 한다.

2. 영어의 이동동사와 장소표지

이동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 속에 여러 종류의 장소를 포함하게 되고 따라서 이동동사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들과 함께 쓰이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2a)처럼 이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2b)처럼 어디에서 출발하였는가, (2c)처럼 어디에서 이동이 일어났는가, (2d)처럼 이동이 직접 거쳐간 공간은 어디인가, (2e)처럼 이동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길을 택했는가, 혹은 (2f)처럼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하였는가 등을 들 수 있다.

- (2) a. John went to New York./John reached New York.
 b. John departed from New York./John left New York.
 c. John ran in the park.
 d. John crossed the river.
 e. John went to school along that street.¹
 f. John walked ten miles.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표현들의 통사적인 기능—논항(argument)인가 부가어(adjunct)인가, 전자라면 목적어(object)인가 사격어(oblique)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논항과 부가어를 가려내는 테스트는 여러 연구들(Bresnan 1982, Dowty 1982, Pollard and Sag 1987: 132, Pinker 1989: 40-41, Borsley 1991: 62 등)에서 제시된 바 있는데 그 중 Pinker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3) a. 합성성(Compositionality): 논항을 표시하는 전치사는 의미가 없는 통사적인 표지이고 부가어는 그 의미가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the king of France에서 of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of France는 논항이며 the king from France에서 from은 출발지(source)라는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from France는 부가어이다.
 b. 존재 함의성(Existential entailment): 서술어의 의미가 함께 쓰이는 표현의 지시물이 존재함을 함의하면 그 표현은 논항이고 반드

¹ 이 문장은 특정한 길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로 “along that street”에 초점이 주어진다.

시 그런 함의를 갖지 않으면 부가어이다. 예를 들어 Susan이 a sister라면 그녀는 반드시 어떤 특정인의 sister라야 한다. 따라서 Susan is the sister of Steven에서 of Steven은 논항이다. 그러나 Susan is the sister near the wall같은 표현에서 sister는 특정장소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near the wall은 부가어이다.

- c. 유일성(Uniqueness): 논항은 반복될 수 없고 부가어는 반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aul sang a song in the park near the tree across from the fence는 가능하고 *Paul sang a song a pretty ballad은 비문법적이다.
- d. 필수성(Obligatoriness): 논항은 필수적이고 부가어는 수의적이다. John devoured the steak는 문법적인데 비해 *John devoured는 비문법적이다.

이 테스트들이 모두 같은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중에서 가장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 (3d)에 비춰보더라도 (2d)의 “the river”는 논항이다. 그리고 (2e)의 “along that street”와 (2c)의 “in the park”은 필수성이나 유일성을 고려할 때 부가어이다. (2a)와 (2b)의 두번째의 예들에서 “New York”은 필수성을 고려할 때 논항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예문에서 첫번째 문장들, 즉 장소를 전치사구로 표현한 경우인데 “to New York”과 “from New York”은 존재함의성이나 유일성을 고려할 때는 논항이다. “가다”나 “떠나다”는 행위는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의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수성이나 특히 합성성을 고려할 때는 부가어 쪽에 더 가까운데 본고에서는 존재함의성에 초점을 맞춰 이런 표현들을 논항으로 간주하겠다.²또 하나의 문제는 (2f)의 거리 표현인데 합성성은 고려할 수 없고 필수성으로는 부가어, 존재함의성과 유일성으로는 논항이라 판단된다. “walk”류의 동사가 본래 함의하는 것은 (2d)의 “the river”와 같이 거처간 공간인데 “two miles”와 같은 거리 표현은 이를 단지 숫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함의성에 초점을 맞춰 본고에서는 거리 표현도 논항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이들 논항 중 목적어와 사격어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려내는 테스트로는 형태적으로 대격이라는 점과 수동태 구문에

²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런 동사들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모두 논항으로 택하는가 혹은 어느 쪽 하나씩만을 택하는가 하는 문제, 또 필수성에 따른 차이-예를 들어 “depart”는 “from” 전치사구를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비해 “go”의 경우는 훨씬 약하게 느껴진다-등을 더 정확히 밝혀야 한다.

서 주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첫번째 기준에 의해서는 (2a)와 (2b)의 두번째 문장이나 (2d), (2f)의 장소논항 등을 목적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테스트는 여러 연구 (Quirk, Greenbaum, Leech, and Svartvik 1971, Jackendoff 1972, Pinker 1989 등)에서 지적된 대로 의미에 따라, 예를 들면 (4a)와 (4b)의 대비가 보여주는 것처럼 행위자의 속성에 따라, (4c)와 (4d)처럼 동사의 미묘한 의미차이에 따라, 그리고 (4e)와 (4f)처럼 동사의 의미는 같더라도 어떤 논항을 주어로 택하는가 등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타동사의 직접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2)의 예문들을 판단할 때 수동태를 테스트로 삼을 수는 없겠다.

- (4) a. The room was entered by a strange man.
 b. *The room was entered by a balloon.
 c. The wall was touched by John after he reached for it strenuously.
 d. *The wall was touched by John for two days, since his murderer had propped his lifeless body against it.
 e. Bill is regarded by Harry as pompous.
 f. *Harry is struck by Bill as pompous. (Jackendoff 1972: 45)

(2)의 예들을 홍재성(1989)의 주제역할(Thematic Roles)에 의한 분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2)의 예들은 각기 목적지(Goal)와 출발지(Source), 배경(Scene), 행로(Course), 통로(Path), 거리(Extent) 등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첫째, 목적지는 주로 전치사구로 표현되며 (5a)의 동사들처럼 전치사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와 (5b)처럼 특정한 전치사와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 (6)의 동사들은 전치사의 의미가 동사의 의미속에 합성(conflation)된 경우로서 목적지를 가리키는 명사를 직접목적어로 택한다.

- (5) a. go/walk/skip/run/come/fly to/into/onto/up to the room
 b. arrive at/in the city get to the city

- (6) enter the room/reach London

둘째, 출발지도 전치사의 목적어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7b)처럼 특정한 전치사만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leave처럼 출발지를 직접목적어로 택하는 동사도 있다.

- (7) a. go/walk/skip/run/come/flee from/out of the room
 b. depart from the city

(8) leave London

셋째, (2c)에서 예시한 배경은 in, on, at 등의 전치사의 목적어로 표현되는 부가어이다. 넷째, (2d)의 행로는 얼핏보면 배경과 유사한 듯이 보이나 의미적으로 이 두 개념은 구별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9)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행로란 “이동의 동작에 의해 직접적으로 거쳐가게 되는 공간을 가리킨다”(홍재성 1989: 21). 즉, 움직임의 주체는 행로의 한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길을 따라 계속 행로의 다른 점까지 이동하게 된다. 행로도 의미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9a)와 같이 이동의 동작이 어떤 공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거치는 경우와 (9b)와 같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그 공간의 일정부분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즉, “cross the desert”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막은 계속되지 않으나 “wander the desert”의 경우에는 아직도 사막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다. 행로와 배경의 차이는 (10)에 드러나는데 “cross the street in the town”과 같은 표현에서 “the street”은 건너는 동작이 거쳐가는 행로이고 “in the town”은 일정한 행로를 거치는 동작 전체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공간이다. 이 차이는 의미적으로도 분명한데 행로는 동사 자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비해 배경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이 바로 (3b)에서 논의했던 존재함의성이며 행로는 논항이고 배경은 부가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 (9) a. cross the desert/traverse the continent/swim the Channel/ascend the stairs/descend the stairs/circumnavigate the globe/climb the mountain/travel the country
 b. wander the forest/fly the Pacific/run the Central Park

(10) cross the street in the town/ascend the stairs in the house

통사적으로 행로는 배경과 달리 주로 직접목적어로 표현된다. 혹은 아래와 같이 자동사로 쓰이면서 전치사구를 택할 수도 있는데, (9a)의 동사들은 대체로 목적지를 나타내는 to 같은 전치사를 택하고 (9b)의 동사들은 배경을 표시하는 in 등의 전치사를 택한다. 이 중 특히 후자의 전치사구가 배경인지 행로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4장에서 상술하겠다.

- (11) a. cross to the other side/ascend to the roof/climb up the mountain
 b. wander in the forest/run in the Central Park

다섯째, 통로는 행로와 유사하지만 역시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9)의 행로는 이동의 동작이 거쳐가는 공간인 동시에 그 이동의 직접적인 목표가 된다. 그에 비해 (12a)의 “that street”는 그 이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택한 특별한 길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통로는 수단(Means)과 의미적으로 밀접하다고 할 수 있고 통사적으로는 주로 전치사의 목적어로 표현되나, 같은 명사구가 (12b)처럼 이동동사의 직접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하겠다.

- (12) a. go to school along that street
b. cross the bridge/follow the path/walk the street

마지막으로 행로가 이동의 동작에 의해 직접적으로 거쳐가게 되는 공간이라면 거리란 그 공간을 숫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통사적으로는 직접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고 for 같은 전치사를 통해 부가어로 표현될 수도 있다.

- (13) a. drive ten miles
b. drive on for a few miles

3. 한국어의 이동동사와 장소표지

한국어는 동사와 장소표현의 의미에 따라 장소표현 뒤에 “를” 표지가 오거나 장소를 명확히 드러내는 후치사가 올 수 있다.³ 이들 중 논항과 부가어, 목적어와 사격어를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첫째, 논항은 개념 자체는 언어보편적이거나 언어에 따라 쓰일 수 있는 테스트에 차이가 있다. 2장의 (3)에서 제시된 테스트 중 필수성과 유일성은 한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어는 (14)에서 보듯이 문장내의 어느 요소나 자유로이 생략할 수 있으므로 필수성을 적용할 수 없고, (15)에서 보듯이 “가”나 “를”이 붙은 표현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소위 중주어/중목적어 구문이 존재하는데 이때 모든 중첩된 표현이 논항인지 하나만이 논항이라면 어느 것인지 등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유일성을 테스트로 이용할 수 없다.

- (14) a: 너 밥 먹었니?
b: 응, 먹었어.

- (15) a. 철수가 손이 크다.
b. 어머니가 철수를 손을 잡으셨다.

³ 한국어의 “를”을 대격이라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임흥빈 1979, Y. -S. Kang 1986, Y. -J. Kim 1990, J. H. Yoon 1990, 신현숙 1991, 선우영 1994 등). 본고는 4장에서 “를”을 특정한 의미자질과 담화기능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따라서 “를”을 동사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통사론적 표현을 쓰지 않고 “를” 표지가 온다고 표현하겠다.

그러면 합성성과 존재함의성 두 가지를 한국어에서 테스트로 이용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의 예측이 다를 경우 논항의 본래 정의에 더 가까운 존재함의성을 따르겠다. 둘째, 목적어는 “를”이 격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수동태도 항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현재로는 한국어에서 목적어와 사격어를 분명히 가려낼 만한 테스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⁴

구체적인 예를 보면 첫째, 목적지나 출발지는 대체로 전치사구를 택했던 영어와 달리 동사에 관계없이 항상 “를”이 올 수도 있고 후치사가 올 수도 있다. 양쪽 모두 존재함의성을 고려할 때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 (16) a. 학교를/에 가다/오다/올라가다/걸어가다/들어가다⁵
 b. 학교를/에서 가다/오다/출발하다/떠나다/나가다

둘째, (9)에서 이미 설명한 정의에 따라 배경과 행로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즉, (17)에서 “다리”는 건너다는 이동이 직접적으로 거쳐가게 되는 공간인 행로이며 “한강”은 다리라는 일정한 행로를 거치는 동작 전체의 배경을 제시한다. 행로는 영어에서와 같이 (18a)처럼 이동이 어떤 공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거치는 경우와 (18b)와 같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합성성이나 존재함의성을 고려할 때 행로는 논항이고 배경은 부가어임이 분명하다. 통사적으로도 영어와 유사하게 (18)처럼 “를”을 택할 수도 있고 (19)처럼 후치사를 취할 수도 있는데 두 종류의 동사가 각기 취하는 후치사가 다르다. (19)의 표현들이 행로인가 하는 점은 4장에서 상술하겠다.

(17) 한강에서 다리를 건너다

- (18) a. 사막을 건너다/대륙을 횡단하다/산을 오르다
 b. 동네를 돌아다니다/공원을 산책하다/사막을 헤매다

- (19) a. 사막의 끝까지 건너다/산에 오르다
 b.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공원에서 산책하다/사막에서 헤매다

셋째, (20a)에서 “강”은 이동의 동작이 거쳐가는 공간이며 그 이동의 목

⁴ 한국어 수동태의 형태와 의미적 제약에 대하여는 K. Lee(1987), 한국어에서 목적어를 가려내기 위한 테스트에 대하여는 K. -S. Hong(1991) 참조.

⁵ Choi and Bowerman(1991)은 “방에 들어가다” 같은 표현에서 “에”는 “방”이 이동의 목적지라는 것만을 표현하고 “들어”라는 동사의 부정사구 형태가 이동의 주체가 따라가는 길이라는 개념의 “Path”를 표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Path의 개념은 영어에서는 “into” 같은 전치사로 어휘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세분화된 Path는 다루지 않고 있다.

표인테 비해 “다리”는 이동을 하기 위해 택한 특별한 길이다. 이런 통로는 언제나 후치사구로 표현되며 합성성이나 존재함의성을 고려할 때 부가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명사구가 (20b)처럼 “를”로 표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하겠다.

- (20) a. 다리로 강을 건너다/오솔길로 학교에 가다/비탈길로 산을 내려가다
 b. 다리를 건너다/오솔길을 가다/비탈길을 내려가다

마지막으로, 거리도 영어와 같이 “를”을 택하여 이동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영어와 달리 (22)처럼 거리 표현뿐 아니라 시간 표현도 “를”을 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마일”이란 거리표현은 존재함의성을 고려할 때 논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두 시간”이라는 시간표현은 존재함의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22)의 정확한 의미는 “두 시간이 걸리는 장소/거리를 걷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뜻에서 본고에서는 “두 시간”을 부가어라고 본다.

- (21) 이 마일을 걷다/돌아다니다/날다/오르다
 (22) a. 두 시간을 걷다/돌아다니다/날다/오르다
 b. 두 시간 동안 걷다

4. “영향입음(Affectedness)” 자질에 의한 분석

영어와 한국어 이동동사의 장소표지가 보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고는 “영향입음(affectedness)”이란 의미 자질을 도입하고자 한다. “영향입음”이란 의미자질은 전통적으로 동사가 그리는 상황에서 변화를 겪는 요소라 정의되어 왔었는데, 최근 Vendler(1967), Dowty(1979)의 전통을 따라 Tenny(1987, 1992), Wechsler(1991)는 다음과 같은 상적 정의를 도입하였다.

- (23) Affectedness may be defined as the property of a verb, such that it describes a situation or happening that can be delimited by the direct argument of the verb. Affectedness verbs describe events which are measured out and delimited by their direct arguments. (...) With a verb like “eat”, that describes a gradual change, the direct argument can be said to measure out the event. The changing property of the argument may be partitioned into equal sub-parts

so that it becomes a scale, and the event measured out in terms of that scale (Tenny 1987: 75-78).

즉, 어떤 동사가 그리는 사건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일정한 끝점에 도달할 때 그 변화가 그 동사의 논항의 지시물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면 그 동사를 영향입음 동사, 논항을 영향입음 논항이라 부른다. 여기에서 논항이란 이런 의미를 갖는 의미적 논항이라 해석해도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통사적으로도 논항-우리가 (3)에서 논한대로-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Tenny 1987: 80).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먹는다”고 할 때 우리는 사과의 변화에 의해 먹는다는 사건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Tenny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사과를 먹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첫 장에는 사과가 온전한 상태로 있다가 점점 갈수록 사과가 1/10, 1/9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이르면 사과가 완전히 없어진 사진이 나오고 그 이후의 사진에는 내내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때 사과는 먹는다는 사건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며 언제 그 사건이 끝나는지도 명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과는 영향입음 논항이며 먹는다는 동사는 영향입음 동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나는 손수레를 민다”고 할 때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수레의 위치가 변하기는 하나 반드시 어느 끝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함축은 없다.

이런 상적 정의는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동사를 분류한다. 기본적으로는 (24)와 같이 Vendler(1967), Dowty(1979)가 제안했던 네 가지 동사류 중에서 완성동사와 성취동사를 골라낸다.

- (24) 상태동사 (statives): understand, remember
 행위동사 (activities): push a cart, drive a car
 완성동사 (accomplishments): paint a picture, draw a circle
 성취동사 (achievements): recognize, find

구체적으로는 (25)처럼 소비, 창조, 물리적 변화, 추상적 변화, 성취 등을 의미하는 동사들을 골라낸다.

- (25) a. eat an apple/cross the desert
 b. draw a circle/perform a play/play a sonata
 c. ripen the fruit/tighten the cinch
 d. bribe the official
 e. explode the bomb

영향입음 동사와 영향입음 논항을 가려내는 테스트는 두 가지 종류로 크

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밝혀질 것이다.

- (26) a. “한 시간만에(in an hour)” 등의 부사구와 함께 쓰일 수 있는가
 b. 문장 전체가 “V-하는데 (한 시간) 걸리다(it takes one hour in V-ing)”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가
- (27) a. 동사구가 “완전히, 다(completely)” 등의 부사구로 수식될 수 있는가
 b. 명사구가 “전, 온(whole)” 등의 관형사로 수식될 수 있는가

이 의미자질에 의해 설명되는 바가 더 많은 한국어부터 살펴 보자. 첫째, (28)과 (29)가 보여주듯이 목적지와 출발지를 택하는 동사는 영향입음 동사이며 그 논항들은 영향입음 논항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논항들이 이동하는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수가 사과를 먹는 사건과 학교에 가는 사건을 비교할 때 전자는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영향입음 논항인 사과에 점진적인 변화가 생기지만 후자는 학교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해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는 것은 출발지부터 학교까지의 길에서 민수가 지나 온 거리의 증가이다. 한편 (29)는 한 시간 동안 학교를 떠나는 준비를 하다가 마침내 떠나게 되는 사건을 그리는데 이때에도 학교에 아무런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사건의 진행은 학교로부터 멀어지는 거리의 증가에 의해 표시되며 출발지를 떠나는 사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건에 비해 훨씬 더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 (28) a. 학교를/에 한 시간만에 가다⁶
 b. 학교를/에 가는데 한 시간 걸리다
- (29) a. 학교를/에서 한 시간만에 떠나다
 b. 학교를/에서 떠나는데 한 시간 걸리다

둘째, 배경은 이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 (30)의 문장들은 영향입음 동사를 가려내는 테스트를 통과하지만 “시골”과 “산” 중 어느 명사가 오른다는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명백히 후자이다. 움직이는 주체가 산의 밑으로부터 정상까지 이르는 길 위에서 점진적으로 위치를 바꾸어 가는 사건에서 “시골”이라는 배경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경은 영향입음 논항이 아니다.

⁶ 목적지에 “를”이 올 때와 “에”가 올 때 의미 차이—예를 들어 전자가 목적지에 닿았다는 함축을 더 강하게 갖는다—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많다. 본고는 그런 차이는 화용론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 (30) a. 시골에서 산을 세 시간만에 오르다
 b. 시골에서 산을 오르는 데 세 시간 걸리다

이와 달리 우리가 행로라고 이름지었던 “산”은 명백히 영향입음 논항이다. (18)에서 두 가지로 분류했던 행로를 취하는 동사들 중 첫번째 부류는 영향입음 동사의 전형으로 동사가 그리는 사건의 끝이 그 논항명사에 의하여 명시된다. 두번째 부류는 이와 다르다. 우선 (26)의 테스트를 해보면 (33)과 같이 비문이 된다. 그러나 (34)처럼 (27)에 따라 문장의 서술어와 논항을 적절히 수식한 후 다시 (26)의 테스트를 하면 (35)와 같은 완전한 문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해매다”는 “전너다”류의 동사와 달리 특정공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친다는 함축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26)처럼 사건의 끝점을 필요로 하는 시간 부사와는 공기할 수 없다. 그러나 (34)처럼 적절한 양화사를 통해 사건이 끝났다는 함축을 더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동사는 “전너다”와 유사해지고 그런 사건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볼 때 한국어에서 우리가 원하는 개념은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고 적절한 양화사의 수식을 받으면 사건의 끝을 명시할 수 있는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 (33) a. *사막을 한 시간 만에 해매다
 b. *사막을 해매는데 한 시간 걸리다
- (34) a. 사막을 완전히/다 해매다
 b. 온/전 사막을 해매다
- (35) a. 온 사막을 한 시간만에 해매다
 b. 온 사막을 해매는데 한 시간 걸리다

(19)처럼 후치사를 취할 경우는 약간 다르다. (19a)처럼 “에” 등으로 표지될 경우는 “를” 표지된 경우와 같이 영향입음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⁷

- (36) a. 산에 한 시간 만에 오르다
 b. 산에 오르는데 한 시간 걸리다

그러나 (19b)처럼 “에서” 등으로 표지되는 경우는 우선 (37)처럼 “한 시간만에” 등의 시간표현과 공기할 수 없고 (38)과 같이 양화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39)의 문장들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즉, “사막에서”라는 표현은 “완전히/온” 등의 표현으로 수식된다 해도 동사가 그리

⁷ “사막의 끝까지 전너다”와 같이 표지가 단순한 후치사가 아닌 경우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는 사건이 사막 전 공간에 걸쳐 일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점이 (34)와 매우 다르며 “사막에서”를 영향입음 논항이라 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 (37) a. *사막에서 한 시간만에 헤매다
 b. *사막에서 헤매는데 한 시간 걸리다
- (38) a. *사막에서 완전히/다 헤매다
 b. *은/전 사막에서 헤매다
- (39) a. *은 사막에서 한 시간만에 헤매다
 b. *은 사막에서 헤매는데 한 시간 걸리다

(40)에서 동사는 영향입음 동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는 것이 “다리”라는 통로인지 “강”이란 행로인지 밝히기는 그리 쉽지 않다. 통로란 어떤 행로를 거쳐가기 위해 실제적으로 택하는 길이므로 움직임을 통로를 기준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행로를 기준으로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c)와 (40d)에서 양화사가 수식하는 것이 행로임을 볼 때 통로는 영향입음 논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40) a. 한 시간만에 다리로 강을 건너다
 b. 다리로 강을 건너는데 한 시간 걸리다
 c. 다리로 강을 완전히/다 건너다
 d. (*전) 다리로 은/전 강을 건너다

그러나 (41)처럼 “다리” 같은 표현도 “를” 표지가 붙으면 문법성이 크게 달라진다. (29)와는 달리 전칭양화사가 “다리”를 수식하게 되는데 이는 “다리를”이란 표현이 통로가 아닌 행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41) a. 다리를 한 시간만에 건너다
 b. 다리를 건너는데 한 시간 걸리다
 c. 다리를 완전히 건너다
 d. ?전 다리를 건너다⁸

마지막으로 거리도 영향입음 논항이다. 이는 이미 설명한 대로 “사막” 등의 표현이 특정한 공간의 이름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마일”은 그런 공간을 숫적으로 표현한 것일뿐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⁸“전 다리”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해석이 된다 해도 “하나의 다리를 끝까지 건넜다”는 뜻이 아니라 “강 위에 놓인 모든 다리를 다 건너보았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41c)를 근거로 삼는다.

- (42) a. 이 마일을 한 시간만에 걷다
 b. 이 마일을 걷는데 한 시간 걸리다

지속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가어이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영향입음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두 시간을 걷는다”고 하였을 때 걷는다는 사건의 진행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보여지며 두 시간이 지났을 때가 바로 사건의 끝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테스트를 통해 보이기란 쉽지 않은데 (43a), (43b)는 서술부가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함으로 인해 그리고 (43d)는 “전”의 의미와 “두”의 의미의 상충으로 인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하기는 하지만 (43c)에 의존하여 지속표현의 영향입음 자질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 (43) a. *두 시간을 두 시간만에 걷다
 b. *두 시간을 걷는데 두 시간 걸리다
 c. 두 시간을 완전히/다 걷다
 d. *전 두 시간을 걷다

한국어의 장소표현의 표지를 영향입음이란 의미자질에 의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44)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고 적절한 양화사의 수식을 받으면 사건의 끝을 명시할 수 있는 표현은 논항이전 부가어이전 관계없이 “를” 표지를 붙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를” 표지를 붙일 수 없다.

그럼, 영어의 경우를 살펴 보자. 첫째, 목적지나 출발지의 경우 대격을 받거나 전치사구의 목적어로 쓰이거나 동사가 그리는 사건을 상적으로 한정짓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런 동사들을 영향입음 동사라 할 수 있고 같이 쓰이는 장소표현들을 영향입음 논항이라 할 수 있다.

- (45) a. John went to New York in one hour.
 b. It took one hour for John to go to New York.

- (46) a. John reached New York in one hour.
 b. It took one hour for John to reach New York.

- (47) a. John departed from New York in one hour.⁹

⁹ (47), (48)에서 본고의 논의에 관계되는 의미는 “John이 준비를 해서 New York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한 시간 걸렸다”는 뜻이다. 이 문장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것은 한국어 예문에서 언급했듯이 떠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b. It took one hour for John to depart from New York.

(48) a. John left New York in one hour.

b. It took one hour for John to leave New York.

행로와 배경은 차이를 보이는데 (49)의 행로는 “in one hour”와 같은 표현과 같이 쓰이며 배경은 (50)과 같이 사건의 상적진행과 관계가 없으므로 그런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없다.

(49) a. John crossed the desert in ten days.

b. It took ten days for John to cross the desert.

(50) a. *John ran in the park in one hour.

b. *It took one hour for John to run in the park.

행로를 취하는 동사들 중 반드시 그 행로를 끝까지 다 거쳤다는 함축을 갖지 않는 (9b)의 동사들은 동사가 그런 함축을 갖지 않으므로 (51)의 문장들은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처럼 행로표현을 “whole, entire” 등의 전칭양화사로 수식하여 그 행로 전체를 다 거쳤다는 함축을 부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영항입음 논항의 정의에 맞게 되고 (52)처럼 “in one hour” 등의 시간부사와 공기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동사가 장소를 “in” 등의 전치사의 목적어로 표현했을 경우 (53)처럼 “whole” 같은 수식어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없고 “in one hour” 등의 시간부사를 쓸 수도 없다. 그것은 이런 장소표현들이 이동의 진행을 보여주면서 적절히 수식되면 이동의 끝을 명시할 수 있는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51) a. *John wandered the forest in one day.

b. *It took one day for John to wander the forest.

(52) a. John wandered the whole forest in one day.¹⁰

b. It took one day for John to wander the whole forest.

(53) a. *John wandered in the whole forest.

b. *John wandered in the whole forest in one hour.

c. *It took one hour for John to wander in the whole forest.

¹⁰ 전치사 중에서 영항입음 논항과 같이 쓰여 그 뜻을 강조해 주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around”는 “to travel through a place, going to most of its parts”의 뜻으로 영항입음의 의미를 분명히 해 준다.

(i) John wandered around the whole forest in one day.

(ii) John ran around the whole park in one day.

(54)처럼 통로와 목적지가 같이 쓰였을 경우 이동의 진행을 보여주는 것은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의미상 “completely”나 “whole” 등의 표현으로 테스트를 해 볼 수는 없지만 “that street”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통로를 나타내는 표현도 대격으로 표현되면 그 자체가 이동의 직접적인 목적이면서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게 되어 (55)처럼 영향입을 논항을 가려내는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 (54) a. John went to school along that street in one hour.
b. It took one hour for John to go to school along that street.

- (55) a. John crossed the road in two minutes.
b. It took two minutes for John to cross the road.

마지막으로 거리 표현은 그 거리만큼을 이동하게 되면 동사가 그리는 사건이 끝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영향입음이란 의미자질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예측대로 “in one hour”란 시간부사와 공기할 수 있다.

- (56) a. John walked ten miles in one hour.
b. It took one hour for John to walk ten miles.

위의 논의에서 본 영어와 한국어 이동동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7) a. 목적지와 출발지는 영어는 대격이나 전치사, 한국어는 “를”이나 후치사, 모두 가능하다.
b. 행로는 대격이나 “를”만 가능하다.
c. 배경과 통로는 전치사나 후치사만 가능하다.
- (58) a. 영어는 목적지나 출발지를 전치사구로 주로 표현한다.
b. 영어는 거리표현과 달리 지속표현은 대격을 받을 수 없다.

(57)은 위에서 언급한 (44)를 약간만 수정하면 두 언어를 설명할 수 있다. (59)에서 달라진 점은 “논항이건 부가어이건” 구절의 삭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곧 설명이 나올 것이다.

- (59)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고 적절한 양화사의 수식을 받으면 사건의 끝을 명시할 수 있는 표현, 즉 영향입음 표현은 영어에서는 대격, 한국어에서는 “를” 표지를 붙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대격이나 “를” 표지를 붙일 수 없다.

(58a)는 본고의 주장과 직접 관계는 없고 영어와 한국어가 다른 어휘화 (lexicalization)의 방법을 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영향입음이란 자질 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휘화를 한다고 해도 차이는 없어 보인다. 두 언어의 심각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58b)인데, 이는 거리표현은 논항이고 지속표현은 부가어라는 본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영어는 (59)와 같은 의미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통사적 논항만 대격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는 논항인지 부가어인지에 관계없이 “를” 표지를 붙일 수 있다는 매개변수를 설정하면 설명가능하다. 따라서 (60)을 이동동사의 장소표지에 관한 규칙으로 제안할 수 있다.

(60) 이동동사와 함께 쓰이는 장소표현은

- a. 한국어에서는 의미적으로 영향입음 표현만 “를” 표지를 붙일 수 있다.
- b. 영어에서는 의미적으로 영향입음 표현 중 통사적 논항만 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깊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대격과 “를”의 비교이다. (60)이 의미하는 바는 영어의 대격은 의미적, 통사적 기능을 모두 갖는 데 비해 한국어의 “를”은 통사적 기능이 없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어의 대격은 그 이름대로 통사적 논항에만 붙는 격조사이고 한국어의 “를”은 부가어에도 붙는 것으로 보아 격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지적한 대로 “를”은 격조사라고 할 수 없는 넓은 분포-후치사구, 동사의 부정사구 형태, 부사의 뒤 등 -를 보인다.

(61) a. 벌써 집에를 가니?

b. 많이 먹지를 못했어.

c. 워낙 급히를 가니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두 가지 설명방식이 가능한데 첫째는 두 가지 종류의 “를”을 상정하는 것이다. 즉, 영어의 대격과 같은 분포를 보이는 통사적 대격 “를”과 화용론적인 기능을 갖는 담화표지 “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두 가지의 “를”이 다른 행태를 보일 때에만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대격 “를”은 담화적인 기능을 전혀 갖지 않고 반대로 담화표지 “를”도 통사적인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인데,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대로 이 둘 사이에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임홍빈 1979, 신현숙 1991, 선우영 1994 등). 전형적인 목적어에 나타나는 “를”도 (62)처럼 담화의 초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담화표지로서의 “를”도 (63)에서 보듯이 생략가능하기 때문이다.

- (62) a.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밥을/*밥 먹어야 건강하단다.
 b. 아니, 남자가 걸레를/*걸레 빨러 간다고? (선우영 1994: 67-68)
- (63) a. 벌써 집에를/집에 가니?
 b. 많이 먹지를/먹지 못했어.

두번째 가능한 설명은 한국어의 “를”은 한 가지이고 영어의 대격이 담당하는 기능을 우연히 진부분집합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모든 경우의 “를”을 하나로 규정해 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데 본고는 이동동사 이외에 다양한 동사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영향입음이란 의미 자질이 그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¹¹

5. 결 론

영어와 한국어는 어족이 다른 언어이므로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동동사와 장소표지라는 작은 주제를 놓고 살펴 보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고 차이점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처럼 보인다. 본고에서는 두 언어의 이동동사가 영향입음이란 상적 자질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특징지워지면서도 영어에서는 한국어에 없는 통사적인 제약을 받음으로 하여 두 언어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고 설명하려 했다. 매우 제한된 자료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이런 분석이 정당하다면 영어는 통사성을 지향하는(syntax-oriented) 언어이고 한국어는 담화성을 지향하는(discourse-oriented) 언어라는 일반화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선우영(1994) ‘국어조사 “이/가”, “을/를”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신현숙(1991) 한국어 현상-의미 분석, 상명여대 출판부.
 임홍빈(1979) “을/를” 조사의 의미와 통사,’ 한국학 논총 2, 국민대 출판부.

¹¹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동태 구문이 더 확실한 통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에는 아래와 같은 수동태 문장들을 실제로 말하는 것 같으나 개인별로 문법성 판단에 차이가 많아 근거로 삼지 않겠다.

- (i) 요즘은 떠나온 지 오래되어 그런지 시골집이/에 잘 안 가겨요.
 (ii) 이 일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급히가 잘 안 되네요.

- 홍재성(1989)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 Borsley, R. (1991) *Syntactic Theory: a Unified Approach*, Edward Arnold, London.
- Bresnan, J. (1982) 'Polyadicity,' in J. Bresnan e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MIT Press, Cambridge.
- Chae, H. -R. (1994) 'Verb classification and a definition of movement/locomotion verbs,' paper presented at the 4th Korean-French Conference on Grammar and the Lexicon,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 Choi, S. and M. Bowerman (1991) 'Learning to express motion events in English and Korean,' in B. Levin and S. Pinker eds., *Lexical and Conceptual Semantics*, Blackwell, Cambridge.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Reidel, Dordrecht.
- Dowty, D. (1982) 'Gramatical Relations and Montague Grammar,' In P. Jacobson and G. K. Pullum, eds., *The Nature of Syntactic Representation*, Reidel, Netherlands.
- Hong, C. -S. (1994) 'Noms prédictatifs à l'accusatif dans la construction du verbe "ka-",' paper presented at the 4th Korean-French Conference on Grammar and the Lexicon,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 Hong, K. -S. (1991) *Argument Selection and Case Marking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Cambridge.
- Kang, Y. -S. (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 Kim, Y. -J.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 Lee, K. (1987) 'The meanings of the two passive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3, 185-201.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 Pollard, C. and I.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1*,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71) *A Grammar of*

-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London.
- Talmy, L. (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imothy Shopen ed.,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nny, C. (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 Tenny, C. (1992) 'The aspectual interface hypothesis,' in I. Sag and A. Szabolcsi eds., *Lexical Matters*,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 Vendler, Z. (1967) 'Verbs and times,' in Z. Vendler,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Wechsler, S. (1991) *Argument Structure and Linking*,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 Yoon, J. -M. (1994) 'On the proper treatment of the "-le" clause in Korean Movement verb constru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4th Korean-French Conference on Grammar and the Lexicon,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 Yoon, J. H. (1990) 'Theta-theory and the grammar of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s,' *NELS 20*, 502-516.

ABSTRACT

Locomotion Verbs and Place Noun Marking

Ki-Sun Hong

Locomotion verbs are used with various kinds of place expressions which are marked according to the meaning. For example, a goal is expressed either as an object with accusative case or as a prepositional object in English.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there are significant similariti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in marking place expressions of locomotion verb constructions. In order to account for them, I argue for a semantic feature called Affectedness, which is defined as the aspectual property of a verb, such that it describes an event that can be measured out and delimited by

the direct argument of the verb (Tenny 1987). I argue that this feature enables us to capture the generalization that any expression denoting affected entities can be marked with “*lul*” in Korean while only a syntactic argument among such expressions allows accusative case marking in English. This partly explains why accusative marked place expressions in English show a restricted distribution compared to “*lul*” marked ones in Korean.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51-742